

『美德のよろめき』에 관한 一考察 - 三島由紀夫 作品을 중심으로 -

張 晉 洙*

〈차 례〉	
I. 서 론	(3) 작품의 구조
1. 연구동기 및 목적	2. 형식 주의적 작품분석
2. 창작동기 및 테-마구성	1) 탐미주의
II. 본 론	2) 공상사상
1. 『美德のよろめき』의 작품분석	3) 도덕주의
1) 구조적 작품분석	4) 관념사상
(1) 시간성	III. 결 론
(2) 작중인물의 묘사	

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美德のよろめき』는 일본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사회적 규범으로 바뀐 10년 후 1957년(昭和 32년)에 쓰여진 작품이다. 그 당시의 규범에서 보면 사회적인 규범을 타파한 대단한 소설이었고, 당시의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일종의 윤리적 죄악인 범죄의식을 발생시키는 작품으로 그 당시의 일본에서는 폭발적인 붐을 일으켰다.

* 한국해양대학교 부교수, 일문학

1954년도 우리나라에서도 소설가 정비석씨가 쓴 「자유부인」¹⁾이라는 소설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그 당시의 한국 여성에게 자유주의를 선언한 작품으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몇년 후 일본에서 작가 三島由紀夫가 쓴 작품『美徳のよろめき』는 여성 주인공이 가정을 두고 외도한 간통 소설로써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작가(作家) 三島由紀夫에 대해 알아보면 그는 전후파(戰後派)의 문학가로 본명은 平岡公威이며 1925년(大正14年)에 일본의 「江戸っ子」²⁾로 東京 新宿區에서 아버지 平岡粹과 어머니 倭文重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남동생 千之와 여동생 美津子が 있고, 선조부터 귀족인 가문에서 자랐다.

學習院 高等科와 東京大學 法學部(法學部)에서 수학(修學)하였다. 그는 東京大學 재학중 高等文官(高等文官) 시험에 합격한 후 1947년(昭和 22年)에 졸업과 동시에 大藏省(大藏省)에서 관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大藏省(大藏省)을 그만 두었다. 三島는 學習院 재학중에 이미 문학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16세의 나이로 清水文雄의 추천으로 「文藝文化」에 『花ざかりの森』란 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있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 문학 활동을 하여 많은 작품을 써서 발표하고 간행 하였다. 그의 사상은 일본 낭만파(浪漫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1951년(昭和26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에 걸쳐 세계 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작품 『潮騒』를 썼고 그후 『永すぎた春』라는 작품은 1956년(昭和31年)에 「婦人俱樂部」에 연재되었고, 12월에 講談社에서 간행하였다.

그 다음해 『美徳のよろめき』는 1957년(昭和32年) 4월에서 6월까지 「群像」에 연재되어 6월 講談社에 의해 간행된 장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해 10월에 日活 영화사에서 영화화 되었고 당시 「よろめき」라든가 「よろめき夫人」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폭발한 작품이었다.

1) 정비석, 「자유부인」 고려원, 1985

2) 江戸(日本東京의 옛이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東京토박이

『美德のよろめき』가 발표된 그해 1957년 1월 『金閣社』는 제8회 讀賣文學賞을 수상하고 소설가로서의 지위를 구축하였다. 또 소설, 연극, 영화, 매스컴의 각계에서 명실공히 평판을 얻을 때 이 『美德のよろめき』가 쓰여진 것이고, 三島가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美德のよろめき』가 간행되었다.

그 당시의 일본에서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이러한 간통죄를 범한 작품이 인기가 절정에 달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통죄가 친고죄가 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을 통하여 그 당시의 일본은 간통죄가 범죄가 되지 않는 사회상과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시행되어 범죄가 되는 사회상에 대해 두나라 사이의 정서적(情緒的)인 면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다. 간통소설인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면에서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친고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적으로 별로 이상이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헤쳐서 표면으로 표출하려는 즉 부도덕한 패륜의 모델(model)을 만들어 낸 작품이다. 그 당시의 일본사회 분위기를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도 간통죄가 폐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당시의 일본 사회 분위기를 분석해 보고 느껴본다는 것이 이 작품을 분석하는 동기이며 목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의 내용을 사상적인 여러 측면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창작 동기와 작품구성

『美德のよろめき』의 창작동기는 확실히 단정하여 알 수는 없지만 우선 三島에 대한 주위 환경을 관찰하여 보자.

『美德のよろめき』의 창작동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越次俱子が 쓴 「ロマン世界」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三島の古典主義』を踏まえた虚構の青春は、とりもなおさず、三島自身の體驗出來なかつた青春であり、二十代の後半から三十代の前

半になって見て、過去をふり返り、體驗したかった青春であろう。」³⁾

(三島の 古典主義를 근거로 했던 허구의 청춘은 단적으로 말해서 三島 자신이 체험할 수 없었던 청춘이고, 20대의 후반에서 30대의 전반으로 되어 서야 과거를 뒤돌아보고, 체험하고 싶었던 청춘일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美徳のよろめき』をめぐる三島のロマンの世界は、上部に、終戦時に喪失した三島の青春の回復ともとれる虚構の青春を配置し、その青春の回復とつながる。」⁴⁾

(『美徳のよろめき』를 둘러싼 三島の 로망의 세계는, 종전(終戰) 때에 상실했던 三島の 청춘의 회복이라고 할수 있는 허구의 청춘을 배치(配置)하고, 그 청춘의 회복과 연결된다.)라고도 쓰고 있다.

또 松本徹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この『美徳のよろめき』は、三島自身の恋愛が、踏まえられていたようである。歌右衛門の家で紹介された赤坂の有名なさる料亭の娘で、「華やいだ絹張りのとても美人で、お人形のような顔立ちで、不思議に亡妹美津子ちゃんに似」、三島が「眞剣に愛した」女性がモデルで、彼女とは昭和三二年五月、新派の公演『金閣寺』を一緒に見たのを最後に、別れた。」⁵⁾

(이 『美徳のよろめき』는 三島 자신의 연애가 깔려 있는 것 같다. 歌右衛門의 집에서 소개된 赤坂의 유명한 요정(料亭)의 딸로서 「화

3) 越次俱子, 國文學(第21卷16號) 「ロマンの世界」(『美徳のよろめき』를めぐって), P. 80.

4) 越次俱子, 國文學(第21卷 16號) 「ロマンの世界」(『美徳のよろめき』를めぐって) P.81.

5) 松本徹, 「三島由紀夫」, 河出書房新社, P.115.

려하고 아름답고 비단결 같은 굉장한 미인으로 인형같은 용모로 이상하게도 일찍 죽은 여동생 美津子양을 닮았고, 三島가 「진지하게 사랑하는」 여성의 모델로서 그녀와 昭和32년 5월, 신과 공연 『金閣寺』를 함께 관람한 것을 최후로 헤어졌다)

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 작품은 三島가 자신이 연애하고 싶었던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연모(戀慕)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춘시절에 하고 싶었던 연애를 하지 못한 것을 보상받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美徳のよろめき』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 말하여 보자. 北原武夫가 쓴 『美徳のよろめき』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いや、その意味でいふと、「ドルジェル伯の舞踏會」では、同じ人妻ですよその男に恋しながらも、決して肌身を許さなかった女主人公が、この大胆な東洋の遠縁の書いた小説の中では、身を許すことから恋愛を始める。」⁶⁾

(아니 그 의미로라면 『돌젤 백작의 무도회』에서는 같은 유부녀가 다른 남자에게 연애하면서도, 결코 여자가 몸을 허락하지 않았던 女主人公이, 이 대담한 동양의 소설가가 쓴 소설 속에서는 몸을 허락한 것부터 연애를 시작한다.)

고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비석씨가 쓴 『자유부인』에서도 여주인공인 오선영 여사가 대학생 신춘호나 사업가 한태석과 교제를 하였지만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젤 백작의 무도회』란 작품에서도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면서도 결코 여자가 몸을 허락하지 않는데 반하여 작가 三島가 쓴 이 작품

6) 北原武夫, 小學館, 『群像』 日本の作家18, 三島由紀夫, 『美徳のよろめき』 P.145.



의 여주인공 세스꼬(節子)는 연애를 하여 몸을 허락한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다들 뿐 구성내용이 거의 틀리지 않다고 하는 점이 우리나라 『자유부인』이나 서양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통해서 작자가 창작을 시도할 때 작품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엮어지는 작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가 三島가 쓴 이 작품의 창작동기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三島 자신(自身)의 연애관(戀愛觀)을 표현(表現)하려고 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의 구성은 三島의 작품 『潮騷』가 『Daphnis et chloe』 7)의 모사(模寫)인 것처럼 동서양의 소설 중에서도 특히 서양의 『돌궐 백작의 무도회』란 소설을 모방한 작품 같다는 점을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7) 이 내용은 Greece의 목가적인 전원(田園)의 어느섬에서 목양자(牧羊者)가 주운 소년(少年) 소녀(少女)가 이웃하여 양을 기르며 살고 있었다.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전원 생활 속에서 연정이라는 뜻조차 모르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였으나 헤어졌다. 그 후 여러가지 파란과 모험을 극복하고 생전과 만나게 된다. Daphnis는 장원주(莊園主)의 자식으로 Chloe는 대상인(大商人)의 딸로서 경사스럽게 결혼하게 된다는 고대 Greece의 연애소설이다.

II. 본 론

1. 『美德のよろめき』의 작품분석(作品分析)

1) 구조주의적(構造主義的) 작품분석

작품의 대상은 이 작품의 내외부 구조의 요소와 요소간의 관계분석을 하여. 시간적으로 나타난 기간, 인적간의 관계, 작품의 구조에 관하여 고찰 하려고 한다.

(1) 시간성(時間性)

시간적 설정으로 나타난 기간은 확실하게 쓰여지진 않았다. 그러나 문맥 상으로는 약 1년반 동안 주인공 세쓰코(節子)와 쓰찌야(土屋)와의 불륜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계절의 변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초겨울에 만나서 봄 기간동안은 서로 만나 연애하고 교제하는 기간이 되며 여름은 욕욕으로 점철되는 기간이며 가을은 임신하고 그 후 소파 수술을 하여 낙태를 하는 기간이다. 다시 새봄이 와서는 사회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참회하려고 하는 기간이며, 그러한 다음 주인공 세쓰코는 서로 헤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여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다. 이 작품의 시간성을 말하면 단순히 시간의 추이(推移)에 따른 사태의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명확한 시간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계절의 구분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냥 상상할수 있을 정도의 시간성을 나타내어 독자의 호기심

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이 작품 테-마 내용을 시간성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만남

여주인공(女主人公) 세쓰코(節子)는 기품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양미가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특히 관능적인 몸매를 가진 28세의 주부이다.

그녀의 남편 구라코시 이찌로(倉越一郎)는 항상 다망하였다.

기꾸오(菊夫)라는 사내아이가 있으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결혼전 스무살 무렵에 피서지에서 쓰찌야(土屋)와 단 한번 마른 입술에 첫키스를 한 적이 있다.

남편과 함께 간 무도회에서 세쓰코(節子)는 쓰찌야(土屋)와 한곡을 추고 내일 세쓰코(節子)집 근처의 역 플랫폼 품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나 세쓰코(節子)는 약속시간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난후 약속하여 서로 만났다.

② 연애(교제) 기간

이번 약속시간에는 세쓰코(節子)가 30分 늦게 갔다. 쓰찌야(土屋)의 모습은 긴장해 있는 듯한 얼굴이었고, 어두운 눈, 머리카락의 젊음이 넘쳐 흐르는 윤기가 있는 등 사랑의 조건을 그는 갖추고 있다. 그후 2, 3일 지난후 세쓰코(節子)는 쓰찌야(土屋)와 만난 후 처음으로 4, 5명 여자 친구가 모인 티 파티에 참석했다. 거기서 쓰찌야(土屋)가 어느 영화 배우와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또 다시 약속했고, 추운밤 개천 저쪽은 남편을 만날 염려가 없는 곳으로 세쓰코(節子)가 미리 생각해 두었던 곳인데 그곳으로 유혹하여 키스를 하였고, 이것은 9년전 이후 두번째의 키스였다.

쓰찌야(土屋)와의 밀회는 빈번해 졌다. 2月에는 세쓰코(節子)에게는 그것이(월경) 오지도 않고 3월(月)은 소식이 없다. 남편과의 임신이었다. 첫 번째에는 몸이 약해서 남편이 권하여 소파 수술로 낙태를 하였다.

이번에는 애인인 쓰찌야(土屋)를 만나서 이야기 한 후 소파 수술을 하기로 작정했다. 4월 상순 잘 개인날 약속이었다.

③ 육욕(肉慾)의 점철기간

그후 세쓰코(節子)는 5月 여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리고 쓰찌야(土

屋)도 승낙하였다. 쓰찌야(土屋)는 부드럽게 해 주었다. 세쓰꼬(節子)는 쓰찌야(土屋)가 진짜 애인(愛人)으로 생각되었고, 눈치만으로도 통했다. 5월의 여행 약속은 세쓰꼬(節子)는 먼곳에 의사의 진언이 필요 없고 확실한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다. 5월은 아름다웠다. 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기차 여행이었다. 한산한 호텔에서 1박을 했다. 그녀는 성녀(聖女) 같았고 그와 최초의 밤을 함께 보냈다.

또 아침 일찍에도 서투른 자세로 서로 육체를 어울렸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월경을 보고 행복감에 젖었다. 또 여행후 최초의 밀회였다. 그는 그녀를 식사후 도심을 떠난 여관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신체의 탐미주의자였다. 밀회는 거듭되어 갔다. 세쓰꼬(節子) 남편은 피서지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피서지로 가기 전날 쓰찌야(土屋)와의 잠깐 동안의 이별을 위해 처음에 갔던 여관으로 갔다.

東京을 떠난 후 첫 밀회였다. 밀회 장소는 東京과 지금 세쓰꼬(節子)가 있는 호텔 중간쯤의 바닷가 조그만 호텔이었다. 그날밤 세쓰꼬(節子)는 쓰찌야(土屋)와 함께 호텔에 묵었다. 그 후 여름철 여러 차례 이 호텔에서 만났다. 피서를 한 얼마 후 기꾸오(菊夫)와 東京으로 돌아왔다. 세쓰꼬(節子)의 여름의 추억은 육욕으로 점철되었다.

④ 임신과 낙태수술기간

어느 가을날 세쓰꼬(節子)는 약속 장소인 가게로 갔다. 쓰찌야(土屋)에게 소파수술 사실을 이야기했고, 월경이 오지 않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여의사의 진단을 받으러 갔다. 쓰찌야(土屋)와의 임신이었다. 낙태수술을 결심하였다. 꿈속에 나타난 코와 눈썹이 없는 아이를 자주 상상하게 되었고 그 사내아이를 잊으려고 했다.

호텔 베란다에서 쓰찌야(土屋)와 영원히 사라질 어린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으리라 생각했다.

소파 수술을 하고 감기가 걸렸다고 집에서 누워 있었다. 소파 수술을 받은지 스물날이 가까워 온 것이다. 약속한 날 쓰찌야(土屋)는 30分쯤 늦게 왔고 그들은 걸었다. 가을이 끝나는 것처럼 흐리고 춥다.

⑤ 참회 기간

세쓰꼬(節子)편에서 남편에게 몸을 맡겼다. 겨울이었고 그 다음날 마쓰

끼(松木)노인을 만나러 갔다. 그는 구미(歐美)를 방랑하였고 저술도 하였다. 그는 여자도 미술, 음악,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나 예술 일반의 허위적인 성질에는 실망하여 버렸다.

해적이냐 밀수, 탐험에도 가입해 보았고 감옥에서도 또 사선(死線)에서도 살아났다. 마쓰끼(松木)는 그녀에게 쾌락을 버리고 도덕 생활을 하라고 충고 하였다. 또 메이지 시절 화류계 출신으로 정계거물의 미망인의 말을 들었다.

남자를 여자쪽에서 내버린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동정의 눈물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척 하십시오. 그것이 남자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방법이라고 그녀가 세쓰꼬(節子)에게 말했다.

⑥ 헤어지기 위한 기간

겨울철이 되어서 세쓰꼬는 겨울 의복을 꺼냈다. 각테일 드레스를 입고 쓰찌야(土屋)와 강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니이다(飯田)가 세쓰꼬(節子)에게 방문 요청을 하였고, 니이다는 요시꼬(吉子)와 재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세쓰꼬(節子)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세쓰꼬(節子)와 쓰찌야(土屋)의 관계를 세쓰꼬의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한다. 세쓰꼬(節子)는 자기의 거울 같은 것을 거기서 보았다. 빼돌려진 거울이 비쳐주는 보기 흉한 영상을 보고 화를 냈다. 세쓰꼬(節子)는 역전 근처 독일 빵집의 스탠드에 앉았다. 그녀는 권태의 포로가 되었다. 겨울은 어느덧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쓰찌야(土屋)와의 밀회는 기계적처럼 계속되고 정부(情夫)가 되었다. 고통의 소파 수술을 세쓰꼬(節子)는 하였고, 세쓰꼬(節子)의 수술날 마쓰끼(松木)가 죽었다.

세쓰꼬(節子)의 아버지 후지이 가게야스(藤井景安)는 도덕관념이 투철한 66세(才)인 그는 딸을 초청하여 저택에서 식사를 하며 신문에 난 자살자의 이야기를 했다. 후지이는 양심가였고 도덕성이 충만한 자였다. 세쓰꼬(節子)는 가문을 지키려고 쓰찌야(土屋)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다.

⑦ 이별(헤어짐)

4월로 들어서서 눈이 내려 다 편 벚꽃위에 쌓였다. 내일은 쓰찌야(土屋)와 밀회가 있는 날이다. 당일도 흐리고 쌀쌀하게 추웠다. 들어서 식사 후

간통영화를 보았다. 택시를 타고 낮익은 여관으로 갔다.

세쓰코(節子)는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해요. 정말 좋은 기억으로 삼아요.」 「알았어」 사나이는 되풀이된 말을 하고 인정했다.

차를 타고 둘이서 공원에서 내렸다.

4월의 밤은 쌀쌀하였고 포도의 은행나무는 벌써 싹이 돋아 있었다. 마지막 키스를 하고 세쓰코(節子)는 차를 타고 떠났다.

그 후 남편과의 대화가 있었고 세쓰코(節子)의 절절한 심정을 쓰찌야(土屋)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는 보내지 않고 찢어 버렸다.

2) 작중 인물(人物)의 묘사

작품 구조상 등장인물은 많지 않으나 주인공 세쓰코(節子)와 쓰찌야(土屋)와의 주위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쓰코(節子)

기품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양미가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관능적인 몸매를 가진 28세의 주부이고 아들 기꾸오(菊夫)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부녀이다.

세쓰코(節子)는 기독교 신자이고 성격이 께벽하다는 점을 애인인 쓰찌야(土屋)는 알고 있다.

결혼전 스무살 무렵에 피서지에서 쓰찌야(土屋)와 단 한번 마른 입술에 첫 키스를 한 적이 있다. 어느덧 결혼 후 3년이 지났으며 권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고, 부부의 영위는 차차 잘못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세쓰코와 쓰찌야의 밀회는 점점 빈번해 졌다.

세 번의 낙태수술을 하였는데 두번은 자기 남편과의 임신이었고 마지막 한 번은 애인 쓰찌야(土屋)와의 임신이였으며 소파수술로 낙태를 한다. 세상일을 잘 알고 있는 마쓰끼(松木) 노인에게 조언을 듣고 화류계 출신인 여인에게 충고를 받고 자기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도덕관념이 투철한 친정아버지 후지이 가게야스(藤井京安)의 영향으로 애인 쓰찌야(土屋)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자기 남편에게 다시 돌아온다.

② 쓰찌야(土屋)

세쓰코(節子)의 애인으로 모습은 마르고 야무진 체격이고 창백한 안색으로 자못 서정적인 입술과 몸차림이 단정하고 약간 지나간 멋을 좋아하며, 무엇인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소극적인 풍정(風情)이 있는 남자이다.

성격은 좀 건방지다고 생각하면 겸허하고, 묻는 사람에게 찢찢 매는 듯하고 말수가 적다. 또 긴장해 있는 듯한 얼굴이고, 어두운 눈, 머리카락의 젊음이 넘쳐 흐르고 윤기가 있는등 사랑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세쓰코(節子)가 생각하는 청년이다.

세쓰코(節子)가 남편과 함께 간 무도회에서 쓰찌야(土屋)와 한곡을 추고 다음날에 만나기로 하였다. 애인 세쓰코(節子)의 생각은 쓰찌야(土屋)는 다른여자와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정욕적인 사나이이고 충동적인 남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쓰찌야(土屋)는 세쓰코(節子)와 교재하면서도 여배우와 밀회를 하였다. 세쓰코와 애인인 그는 호텔, 여관등을 전전하면서 약 1년 반동안 불륜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세쓰코와 순순히 헤어져 주는 순수하고 로맨틱한 청년이다.

③ 구라코시 이찌로(倉越一郎)

세쓰코의 남편이고 세쓰코의 부모의 주선으로 결혼하였다. 항상 다망하였고 자기의 사업에만 몰두한 건실한 사람이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항상 잠만자고 부인 세쓰코(節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쓰코의 생각으로는 술만 먹는 살덩어리에 불과한 센스 없는 남자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이며 부인 세쓰코를 믿고 신용하며 남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호인형의 사람이다.

④ 요시코(吉子)

세쓰코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니이다(飯田)란 애인을 가지고 있다. 세쓰코가 쓰찌야(土屋)와 5月の 여행을 가기위해 남편에게 친구 요시코가 여행을 가는데 미리 별장을 보아두려고 가는데 세쓰코가 동행하는 걸로 구실을 삼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중에 요시코는 애인 니이다 모르게 도망가서 숨어 버린다.

⑤ 니이다

니이다는 요시코(吉子)의 애인이고 추근추근하며 요시코(吉子)를 괴롭

한다. 그는 사십이 가까운 촌티나는 사나이이다. 자주 요시꼬와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 조금 교만한 편이나 티 파티나 자선단체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했다. 도망간 애인 요시꼬(吉子)를 찾기위해 친구인 세쓰꼬(節子)에게 요시꼬(吉子)의 거처를 물으나 가르쳐 주지 않으므로 세쓰꼬(節子)와 쓰찌야(土屋)관계를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세쓰꼬를 협박하는 문제의 사나이이다.

⑥ 마쓰끼(松木)

세상일을 잘 아는 노인으로 구미(歐美)를 방랑하였고, 저술도 하였다. 여자와 미술, 음악, 문학에도 조예가 깊고, 예술 일반의 허위적인 성질에 실망하기도 했다. 해적이나 밀수, 탐험에도 가입해 보았고, 감옥에서도 또 사선(死線)에서도 살아났다. 마쓰끼(松木)는 쾌락을 버리고 도덕생활을 하라고 세쓰꼬(節子)에게 말해주기도 한 조언자였다. 그러나 세쓰꼬(節子)가 소파 수술을 한 날 죽었다.

⑦ 화류계 출신 부인

메이지 시절 화류계 출신으로 정계 거물의 미망인이다. 세쓰꼬(節子)가 방황하고 있을 때 조언을 해준다. 남자를 여자쪽에서 내버린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되고, 동정의 눈물을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남자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방법이라고 세쓰꼬(節子)에게 충고를 해준다.

⑧ 후지이 가게야스(藤井景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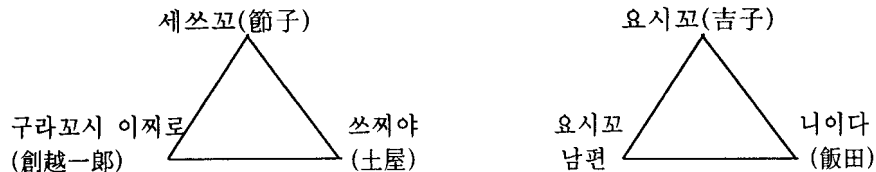
도덕관념이 투철한 66세 인 그는 딸 세쓰꼬(節子)를 교양이 있고 기품이 있도록 키웠고, 훌륭한 가문을 이루고 있다. 딸 세쓰꼬(節子)가 쓰찌야(土屋)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방황하고 있을 때 세쓰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준다. 친정 아버지인 후지이(藤井)가 세쓰꼬(節子)를 식사에 초대하였을 때, 그녀는 가문을 지키려고 쓰찌야(土屋)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인물 관계	기능 관계	결과
세쓰꼬 · 쓰찌야	부정적 기능의 상호보완 관계	헤어짐
요시꼬 · 니이다	니이다의 추구관계	헤어짐
마쓰끼 · 화류계출신부인	세쓰꼬를 참회하도록 유도하는 관계	
세쓰꼬 · 후지이	도덕적, 자애적인 부녀관계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쓰꼬와 쓰찌야(土屋)의 불륜의 간통관계를 성사시키는 보조 인물(人物)의 등장과 참회 하도록 만들어 주는 세상을 잘 아는 달인(達人)의 등장과 도덕적이고 자애롭게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통속적인 연애소설로 호텔, 여관들을 전전하면서 정사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 1950년대의 일본의 유한 마담의 물란한 생활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유한 마담의 생활을 전사(傳寫)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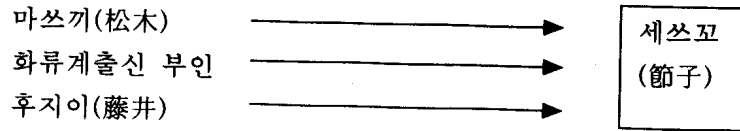
3) 작품의 구조(構造)

사건의 관계를 전개(展開) 하면서 작품의 구조를 설명하면 주인공 세쓰꼬(節子)는 애인 쓰찌야(土屋)와 남편 구라꼬시(倉越一郎)의 삼각관계로 이루어 졌으며 사건 전개에 따른 보조 관계로 세쓰꼬(節子)의 친구인 요시꼬(吉子)의 애인인 니이다(飯田)와 요시꼬(吉子) 남편의 삼각관계로 등장한다.



그리고 두사람은 호텔,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육욕의 점철기간이 된다. 그리고 나서 마쓰끼(松木)와 화류계 출신부인과 친정 아버지인 후지이(藤

井)의 도움으로 참회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세쓰꼬(節子)는 애인 쓰찌야(土屋)와 헤어진다.

2) 형식주의적(形式主義的) 작품분석

형식주의 분석 방법에서 특히 이 작품의 이미지와 상징성(象徴性)을 나타내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탐미주의(耽美主義)

이 소설의 주인공 구라꼬시 세쓰꼬(倉越 節子)부인은 아직 나이 스물 여덟에 지나지 않는데 매우 관능적인 몸매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빈곤생활이나 어려운 고역에서 해방된 여자로서 너무나 지루할 정도의 편안함으로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무력감에 빠져 있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다. 세련된 부인의 오후의 안일은 조각상(彫刻像)의 감각이라도 흉내내보려고 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다.

「ああ、午後の何といふ長さであらう。午後、フレンチ窓のそばへ藤椅子を持ち出して、節子は何時間彫像の眞似をしてゐられるか試さうと思つて、微動だにしないのである。」⁸⁾

「아아, 이 얼마나 긴 오후인가, 오후 프렌치 창(窓)의 옆으로 등나무의자를 가지고 나와 세쓰꼬(節子)는 몇시간 조각상의 흉내를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시험해 보려 생각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다」

8) 佐伯彰一外 3名 編纂,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新潮社, P. 376.

이와 같이 여인의 너무 긴 한가한 여가와 정막감으로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풍부하지만 일상 생활의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부족함이 심하게 되어 사랑과 정열의 생각으로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육체는 석상(石像)이 아닌 이성(異性)을 찾게 된다.

「節子の好みはまったく官能的なものであつた。男はただ荒々しくない美しい顔と、しなやかな體軀を持つてゐればよかつた。そして何よりも若さと。」⁹⁾

(세쓰코(節子)가 좋아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능적인 곳이었다. 남자는 거칠지 않은 얼굴과 미끈한 체구를 갖고 있으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음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이와 같이 욕정은 결혼생활에 반하게 되어, 어렴풋이 생각되는 옛 애인 인 쓰찌야(土屋)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녀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육체라고 생각한다.

「もつとも美しいのはその脚である。上半身はたよりないのに、下半身には或る勁さがある。日本人にはめづらしい長いまつすぐな脚で、……」¹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다리다. 상반신은 자랑할 데가 없는데 하반신은 매끈하다. 일본 사람에게는 진귀한 길고 곧곧한 다리여서, ……)

세쓰코(節子)는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졌고 그녀는 자주 자신의 나신상을 거울에 비치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あらはした肩を鏡に映した。自分の美しい肩はかうして孤立に満ち足りてゐるのに……自分の心にはこの美しい肩の存在が信じら

9)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69.

10)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74.

れないのか、納得がゆかない。自分の美しい肩と自分の心とは別物のやうに思はれる。肉體はかうして自足してゐるのに、かへつて心ばかりが渴いて、貪婪になつてゐるやうに思はれる。」¹¹⁾

(벗어붙인 어깨를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자기의 아름다운 어깨는 엄연히 혼자서 있는 것인데, …… 자기 마음에는 이 아름다운 어깨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자기의 아름다운 어깨와 자기의 마음과는 별개의 것처럼 생각되어졌다. 육체는 이렇게 자족해 있는데 오히려 마음만이 뒤끓어 탐욕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여주인공인 세쓰코(節子)는 결혼전 한번 키스를 했던 쓰찌야(土屋)를 생각하고 그를 애인으로 만든다.

「瘦せて引き締つたその體つき、いくぶん蒼ざめたその顔いろ、そしていかにも抒情的なその唇、……身ぎれいで、少し崩れたお洒落を好み、何かにおびえてゐるやうな消極的な風情があつて、…」¹²⁾

(그는 마르고 야무진 체격, 어느 정도 창백한 그 안색, 그리고 자못 서정적(抒情的)인 그 입술 또 몸차림이 단정하고, 약간 지나간 멋을 좋아하고, 무엇인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소극적인 풍정(風情)이 있으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 잡을 모든 것을 갖춘 대상으로 「로맨틱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세쓰코(節子)는 생각하고 있다.

「土屋はすぐさま節子の脚を好きだと言つた。節子はこれほどまでに自然な禮儀作法のやさしさに酔つてゐた。」¹³⁾

(쓰찌야(土屋)는 이내 세쓰코(節子)의 다리를 좋아한다고 말했

11)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45.

12)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67

13)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20.

다. 세쓰코(節子)는 자연스럽게 나온 쓰찌야(土屋)의 부드러운 예의(禮義)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세쓰코(節子)는 남자에게 여행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고, 이때 비로서 진정한 남자로 되어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서로 통하는 애인이 되었으며 육체의 접촉을 이룬다.

「節子のやさしい優雅な肩から背はあらはになった。節子は自分のいかにもなだらかな美しい肩の線を、心に思ひ描く必要がなかった。土屋の唇が、その線を忠實になぞったからである。やがて彼の燃えてゐる粗い頬の肌が背中にさはつた。」¹⁴⁾

(세쓰코(節子)의 부드럽고 우아한 어깨로부터 등이 드러나 보였다. 세쓰코(節子)는 자기의 너무나도 미끄럽고 아름다운 어깨의 선을 마음 속으로 그릴 필요가 없었다. 쓰찌야(土屋)의 입술이 그 선을 열심히 훑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의 타는 듯한 거치른 뺨이 등을 비비고 있었다.)

작자는 이 소설속에서 육체의 탐미적인 점을 강하게 유혹시켜 여주인공에게 혼외정사를 유도하고 있다.

「カクテル・スーツを着た節子は、その形のよい脚を火の氣のない燠爐のはうへ伸ばした。その形の美しさはまだ決して毀たれてはゐなかつた。」¹⁵⁾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세쓰코(節子)는 그 아름다운 다리를 불기가 없는 난로 쪽에다 뻗었다. 그 선이 아름다운 다리는 아직 결코 허물어져 있지 않았다.)

이 작자는 탐미주의자였고 여체(女體)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

14)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421.

15)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493.

현하였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닌 세쓰코(節子)는 결혼은 하였지만 자기 몸을 과신한 나머지 색정을 품게 되고 패덕(悖德)의 세계로 몰아 갔다.

탐미주의자인 작가(作者)는 여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게 하여 그 여자는 불륜의 관계를 맺게 하고 정사를 하게 한다는 작품구성으로 꾸며내고 있다.

(2) 공상사상(空想思想)

주인공 세쓰코(節子)는 공상(空想)상의 연애를 하였다. 그녀는 어떤 불륜의 꿈을 꾸어도 부끄러운 기분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꾸는 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고, 또 누구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공상상의 연애를 하기 때문이다.

「節子は何か退屈な折に、良人から教はつた多岐な接吻を、ひとつひとつ土屋の上に應用してみる空想にとらはれ、そのたびにぞつとして身を退いた。……あのときの私が今の私だつたら、もつというろいろと教へてあげることができたらうに、……」¹⁶⁾

(세쓰코(節子)는 권태로울 때면, 남편으로부터 배운 복잡한 키스를 하나씩 하나씩 쓰찌야(土屋)에게 응용해 보는 공상에 사로 잡혀 그때마다 오한을 느끼며 몸을 빼곤 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였다면, 더욱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터인데, ……)

「節子は道徳的な戀愛、空想上の變愛をはじめようと思つたのである。……三日間といふもの、ありたけの甘美な空想に酔つて、やつと冷靜になつたところで、土屋に電話をかけた。」¹⁷⁾

(세쓰코(節子)는 도덕적인 연애, 공상상의 연애를 하려 했던 것이다. …… 삼일 동안 그는 할 수 있는 한 감미로운 공상에 취해 있다가 겨우 냉정을 되찾을 무렵, 쓰찌야(土屋)에게 전화를 걸었다.)

16)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367.

17)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372.



세쓰코(節子)에게 있어서는 「공상적인 연애」로 인한 「도덕적인 연애」를 상상하려고 하였다.

즉 어떤 사악한 마음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한 도덕적이고, 미덕의 영역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쓰코(節子)는 연애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고 사랑스럽고 천진스런 형태를 취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패덕(悖德)의 행위에 속하고 추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히 숨기고 있다.

즉 세쓰코(節子)는 저 유명한 그리스교에서의 계율인 「색정(色情)을 품은 자는 모두 이미 마음속에 간음한 자이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인 공상상으로 간음을 하였고 실제로도 간통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은 주인공 세쓰코(節子)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을 유혹하여 약 일년반 여년 동안 마음대로 쾌락을 맛본 후 도덕적인 연애란 미명아래 공상상의 연애로 착각하며 공상상으로 간음하였고 실제로도 간통하여 남편에게는 발각되지 않은 채 교재를 끝내는 완전범죄를 이룩한 작품이다.

「節子のしようとしてゐたのは空想的な戀愛である。……空想の領域はまだ美德に屬し、現實は悖德に屬してゐた。こんな考へ方の結果として、表てにあらはれた行爲については、もつと峻嚴である筈の節子だつた。

そのためにこそ、空想の内では、彼女は大いに寛大であらうとして來たのである。どんな邪惡な心も心にとどまる限りは、美德の領域に屬してゐる、と節子は考へてゐた。そこで、現實の行爲は、どんなにやさしく、愛らしい、無邪氣な形をとつてゐても、悖德の世界に屬してゐた。」¹⁸⁾

(세쓰코(節子)가 하려고 했던 것은 공상적인 연애였다. …공상의 영역은 아직 미덕에 속하고 현재는 패덕(悖德)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로서 표면에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해

18)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04.

야 했을 세쓰꼬(節子) 였었다. 그 때문에 공상속에서의 그녀는 매우 관대하려고 애써 왔던 것이다.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생각으로 그친다면, 미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세쓰꼬(節子)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실의 행위는 아무리 암전하고 사랑스럽고 순진한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패덕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즉 일반 사람들은 「공상상의 패해가 없는 쾌락」은 조금도 간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공상의 영역은 미덕」에 속하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패덕(悖德)에 속하게 된다.

즉 세쓰꼬(節子)가 공상에서 현실인 「패덕(悖德)」으로 나타났을 때 세쓰꼬(節子)의 마음속에는 「감정의 가치의 혼란」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쓰찌야(土屋)와의 육체의 접촉은 황홀하고 감미롭고 환희인 것에 반하여 미덕에서의 공상은 「끝없는 긴 오후의 무료한 시간」 「감정이 메마른 시간」으로 정숙한 아내의 시간밖에 되지 않으며, 즉 「정절과 미덕의 본질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가치 혼란」이 나타났다.

「それにつけても歩一歩深みに入つてゆく節子のはうは、だんだんに土屋から、あるひは土屋の實體から離れて、自分一人で描いた空想の領域に住むやうになった。しかしこんな空想は、肉を知るまでのそれとはちがつてゐた。」¹⁹⁾

(그러나 한발한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세쓰꼬(節子) 쪽이 점점 쓰찌야(土屋)로부터, 또는 쓰찌야(土屋)의 실체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이 그리는 공상의 영역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상하던 육체적인 것을 알게 될 때까지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세쓰꼬(節子)는 「미덕」이 마음속에 있는 관능의 자극에 의

19)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35.

해 마음의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 작품은 연애 소설이 아니고, 간통소설이기 때문에 세쓰꼬(節子)와 쓰찌야(土屋)와의 관계는 떳떳한 관계가 아니고 남의 눈을 피하며 만나서 정사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쓰찌야(土屋)는 세쓰꼬(節子)의 공상 속에서 확실한 연인이지만, 독신 청년으로서 유부녀의 유혹을 받아 일시적인 노리개 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애인인 쓰찌야(土屋)도 자기가 아닌 여배우와 만나는 교활함이 보일 때 그녀의 끝없는 쾌락도 환희도 고통의 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인 세쓰꼬(節子)는 남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는 자기 좋을대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きびしい反省の數時間のあひだは、今は失はれてしまったあの空想上の無害な快樂、ほしいままな美德のたのしみばかりを惜しんでゐた。」²⁰⁾

(준엄하게 반성을 하는 수 시간 동안은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 공상상의 해롭지 않은 쾌락, 제 마음대로의 미덕의 즐거움을 잃은 것이 아까워졌다.)

지난해 여름, 세쓰꼬(節子)는 자연과 친하였고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저 바다, 하늘의 구름, 바람 등이 세쓰꼬(節子)의 체내에서 숨을 자유롭게 쉬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두 적으로 변하였다.

왜냐하면 날은 따뜻하고 개인 맑은 날이었으나 갑자기 그녀의 뇌리 속에는 해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마음을 괴롭혔다.

「うららかな日であるのに、マスクをして、ソフトを目深にかぶつてゐる。すれちがつたとき、思はず節子はソフトの底のかけをのぞいた。その男の鼻のあるべきところは黒々と落ち窪み、目はひきつれて歪み、眉はなかつた。一瞬にして男はすれちがつたか、この

20)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05

奇怪な顔は深刻な印象を節子に残した。」²¹⁾

(날은 따뜻하고 개인 날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소프트를 눈 가까이까지 깊숙이 쓰고 있었다. 지나칠 때에 문득 그 얼굴을 드러다 보았다. 그 사나이의 코가 있어야 할 자리는 꺼멓게 꺼져 있었고, 눈은 비뚤어져서 찌져져 있고 눈썹은 없었다. 순간적으로 사나이는 지나쳐 버렸지만, 이 기괴한 인상은 세쓰코(節子)의 뇌리속에 박혀 있었다.)

세쓰코(節子)는 화창한 한낮의 거리에서, 「불길한 얼굴이 없는 남자」가 비켜 지나갔다. 남자는 코도 눈썹도 없고,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썼다.

『あの怖ろしい顔も、むかしは人並な、美しいと云へる顔だつた日があつて、それがこんな廢墟になつたとすれば、……あの顔にもたしかに人並な美しい原型があつたとすれば……、ああ、私の今の顔、今の姿は、ただ原型にすぎないのではないかしら?』²²⁾

(그 무서운 얼굴도 옛날은 보통 사람과 같은 아름다운 얼굴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것처럼 폐허처럼 돼버린 것이라면... 그 얼굴에도 보통 사람과 같은 아름다운 원형이 있었더라면... 아아 지금의 내 얼굴, 내 자태는 단순한 원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아닐까?)

세쓰코(節子)는 공상상의 연애를 하였고 공상상의 연애는 죄가 되지 않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천진스러운 공상을 하였다. 그러나 실재로는 애인 쓰찌야(土屋)와 불륜을 맺고 정사를 하면서 쾌락에 빠졌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낭만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코와 눈썹이 없는 사나이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뇌리속에 박혔고 그녀는 자기가 배반한 미덕의 보상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 무서운 얼굴이 인간의 원형이라고 생각

21)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439.

22)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461.

하고 공상상의 연애이어도 패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인공 세쓰코는 이 얼굴이 없는 남자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해골을 뜻하고 결국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형(原型)을 나타낸다고 하는 공상사상을 생각하게 되었다.

(3) 도덕주의

세쓰코(節子)는 「도덕적인 연애, 공상상의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節子は堅固な道德觀念を持つてゐたが、……この躰のよい女の羞恥心は、そもそも躰としてしか働らかなかつたので、」²³⁾

(세쓰코(節子)는 뚜렷한 도덕 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몸가짐이 얌전한 세쓰코(節子)는 여자의 수치심이란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몸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세쓰코(節子)는 이 청년의 천진하고 순진함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였고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에 의해, 도덕적인 공포로부터 탈출하려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였다

「このお洒落な青年の中には、節子を上廻るほどの、よほど堅固な道德觀念が隠れてゐるのであらうか?……土屋に會ふとそうそう、節子は自分で進んでかうして逢つておきながら、お説教口調になつた。自分が妻として又母として縛られてゐることを、大いに力説しながら、一方、こんな自分の束縛の味方に立つた。獨り者の土屋を子供扱ひにするためには、節子は十分、妻たり母たる自身を、強調する必要をみとめてゐた。」²⁴⁾

(이 멋쟁이 청년에겐 세쓰코(節子)보다도 더한 아주 견고한 도덕 관념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쓰찌야(土屋)와 만나자마자 세쓰코(節子)는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해 놓고는 설교

23)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67.

24)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76.

하는 듯한 말씨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크게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렇게 자기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무기로서 삼고 있었다. 그녀가 쓰찌야(土屋)를 어린애 취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아내이며 어머니인 자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세쓰코(節子)의 도덕관념을 생각하기 전에 도덕적 이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양심”이나 “이성” 혹은 “본성의 법”이 존재한다」고 Richard L. purtill은 말하고 있다. 25)

즉, 현 사회에서의 규범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세쓰코(節子)는 규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この人相手なら、私の道徳的な戀愛は巧く行きさうだわ』節子のかういふ假定はまちがつてゐた。』26)

(『이 사람을 상대한다면 나의 도덕적인 연애는 잘 이루어질 것 같다……』세쓰코(節子)의 이러한 가정은 잘못되어 있었다.)

『かういふ矛盾の苦しみを、まことに道徳的な考へ方をする節子は、いはゆる「良心の呵責」だと思つたのであつた。』27)

(이러한 모순의 괴로움은 매우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의 세쓰코(節子)에게는 소위 「양심의 가책」이라고 느끼는 것이었다.)

또한 성도덕 로쓰식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 상대자에 대한 불성실과 같은 행동들은 분명히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된다。」28)고 하고 「어떤 종류의 성적 행동은 신의 계획이나 목적과 어긋난 일이 될 것이다。」29)고 말하고 있다.

25) Richard L. purtill, 윤리적 사고방식, P. 136.

26)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73.

27)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05.

28) Richard L. purtill, 윤리적 사고방식, P.126.

29) Richard L. purtill, 윤리적 사고방식, P.136.

세쓰코(節子)는 공상상의 연애를 하고 있으며 또 도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애인 쓰찌야(土屋)와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항상 느끼고 있다.

「世間の人妻なら最初に思ひつきさうなこの目論見、良人に打明けようといふ目論見を、節子は今はじめて思ひついたのである。それといふのも、今まで節子は不道德なことをしてゐるといふ考へがみちんもなかつたのであるから。」³⁰⁾

(보통 세상의 아내라면 애당초부터 생각할 수 있는 일,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일을 세쓰코(節子)는 지금 비로소 생각해낸 것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이제껏 세쓰코(節子)는 자기 자신이 조금도 부도덕적인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야 세쓰코(節子)는 부도덕하다는 점을 깨닫고 달인(達人) 마쓰끼(松木)에게 상담을 한다.

「私が、道德だなどと言ひ出すのをきくと、あなたはお笑ひだらう。しかし私のいふ道德は、人のいふ道德とはすこしちがふのだ。それは人間がどこへも逃避できないやうに自分でこしらへた檻なのだ。」³¹⁾

(내가 도덕론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당신은 웃으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도덕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는 좀 다르지요. 그것은 인간이 어디로든지 도피할 수 없게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리지요.)

「道德とは、人間と世界のこの悪循環を絶ち切つて、すべてのもの、あらゆる瞬間を、決してくりかへされぬ。一回きりのものにしてしようといふ力なのだ。」³²⁾

30)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06.

31)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70.

(도덕이란 인간과 세계의 이 악순환과 절연하여 모든 것 모든 순간을 결코 되풀이시키지 않는 오직 한 번만의 것으로 하려는 힘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며 “비가 온 뒤에는 햇빛이 비친다”는 것처럼 자연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 되풀이 되고 있고 인간은 모든 것, 모든 순간이 일회 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덕이란 것을 배웠다.

또, 도덕이란 쾌락의 장애물이 아니고, 쾌락이란 죄의 권태 속에서 구제해 주는 희망의 일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藤井家の平和な、明るい、道徳的な一族、矩を超えようともせず、慾望に煩はされもしない一族、退屈に苦しめられない心、不まじめな事に身を賭けたりしない堅實さ、さういふものは又節子のものであつた筈だ。」³³⁾

(후지이가의 평화한 밝은 도덕적인 일족(一族), 분수 넘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욕망에 빠져 들려 하지 않는 일족, 권태로 괴로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대단하지 않은 일에 몸을 거는 일이 없는 건실성, 그러한 것은 또한 세쓰코(節子)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간통을 하는 부도덕한 생활속에서 구제자는 뜻밖에도 그녀의 부친이었다. 어느날 세쓰코(節子)는 친정 아버지와 오찬을 함께 했다. 가장(家長) 후지이(藤井)는 자애에 넘치고, 기품도 높고 온화한 인품은 세상의 경모(敬慕)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 신화적인 인물의 청정한 가정 아래에서, 세쓰코(節子)는 전에 이 성가족(聖家族)의 일원이었다.

도덕이란 최소한 「자기의 행위를 이성에 의하여 인도하려는 노력, 다시

32)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70.

33)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95.

말해 도덕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최선의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그것은 자기의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입게 될 각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³⁴⁾고 Jame Rachels는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세쓰꼬(節子)는 친정아버지 후지이(藤井)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폐덕을 깨닫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남편과 그외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4) 관념사상(觀念思想)

이념이나 자아(自我)따위 정신적 존재를 본원적(本源的)인 존재로 보고, 물질적 존재는 오로지 그 현상이나 가상(假象)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사상이라고 관념사상을 말할수 있다.

관념은 객관적인 정적(靜的)으로 「心理」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의 검증은 시시각각으로 심리를 결정하는 주체로 바뀐다. 그래서 육체가 자기 자신의 내면상으로 나타나며 육체의 논리로 말하면 육감이 관념으로 변화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現代においては、何の野心も持たぬといふことだけで、すでに優雅と呼んでもよからうから、節子は優雅であつた。女にとって優雅であることは、立派に美の代用をなすものである。」³⁵⁾

(현대에 있어서는 아무런 야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아하다고 말해도 좋을테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쓰꼬(節子)는 확실히 우아했다. 여자에게 있어 우아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대용어 되는 것이다.)

「節子は大人しく、愛らしく、何の野心も、過乘な教養も持たないのに、何となく自分だけは人とちがつてゐると感じるのである。」³⁶⁾

(세쓰꼬(節子)는 어른스럽고 아름답고, 아무런 야심도 없고 지나

34) James Rachels, 도덕 철학, P. 28.

35)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366.

36)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371.

친 교양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딘가 자기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곳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세쓰코(節子)는 자기 자신을 우아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자기만의 독특
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彼女が十分存在してゐると感じるには、何か詩のやうなものが
必要だった。詩の中でももつともエロティックな詩。觀念の中
でももつとも肉感に近いもの。男のやうに觀念が肉感に移りゆく
のではなくて、肉感がまさに觀念に化して、肉の寶石のやうに耀
やきだしたもの……。」³⁷⁾

(그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됨에 이르기에는 무엇
인가 시(詩)와 같은 것이 필요했다. 시 가운데서도 더욱 에로틱한
시, 관념 속에서도 가장 육감에 가까운 것, 남자처럼 관념이 육감
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육감이 본디 관념으로 화해서 살(肉)
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시가 필요했다.)

「この青年に身を委したといふ自分の精神的姿勢だけで満ち足り
てゐたのである。節子はこのとき、何に似てゐたと云つて、一
等、聖女に似てゐただらう。」³⁸⁾

(다만 한 청년에게 몸을 맡겼다는 자기의 정신적인 자세만으로
만족했을 뿐이었다. 이 때 세쓰코(節子)는 무엇과 비슷했는고 하
면, 거룩한 모습의 성녀(聖女)와 같았다.)

「その晩の節子は實際火のやうに清淨で、彼女自身、ほとんど肉
感的な印象をとどめてゐなかつた。」³⁹⁾

(그날 밤의 세쓰코(節子)는 실제로 불(부처)처럼 깨끗하고 그녀
자신 아무런 육감적인 인상을 주지 않았다.)

37)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382.

38)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10.

39)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前掲書, P 410.

이와 같이 그녀는 자기자신의 몸을 한 청년에게 맡겼지만 정신적으로도 성녀(聖女)나 부처처럼 거룩하고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 세상의 도덕과도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つひぞ行つたことのない菊夫の幼稚園へまで、節子は菊夫について行つたりした。清淨な、聖母的な母親と思はれたさに、化粧を薄目にし、香水を控へ、地味な着物を着た。」⁴⁰⁾

(한번도 가본 일이 없는 기꾸오의 유치원에까지 세쓰꼬(節子)는 기꾸오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단정하고 우아한 성모적인 어머니 같다는 인상을 받고 싶어서 화장도 얇게 하고 향수도 삼갔으며, 수수한 옷을 입었다.)

세쓰꼬(節子)는 정말 현실에서도 성녀(聖女)처럼 행동하려고 하였다.

「節子の今求めてゐるのは、世故に長けた人の忠言ではなくて、もつと嚴肅な訓へてある。戀の懸引の傳授ではなくて、もつと節子の存在自體を押しゆるがしてくれるやうな強い思想である。今さういふものに縋る機會が得られなければ、節子の心は解體して、一擧に破滅へ向つて走つてゆきさうに思はれる。」⁴¹⁾

(세쓰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쓴맛 단맛 다 아는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좀더 엄숙한 훈계였다. 사랑을 여하히 주고 받아야 할까 하는 그런 교수법이 아니라, 세쓰꼬(節子)의 존재 자체를 더욱 힘있게 뒤흔들어 줄 강한 사상이었다. 지금 그러한 것에 매달릴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세쓰꼬(節子)의 마음은 해체되어 단숨에 파멸로 향하여 달려갈 것처럼만 생각되었다.)

여기서 세쓰꼬(節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념 사상이었고 그러한 사상(思想)을 조언해 줄 마쓰끼(松本)라는 노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40)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425.

41) 『三島由紀夫 全集』 第10卷, 前掲書, P 467.

그의 가정교육과 천성으로 인해 그녀의 부친 후지이(藤井)의 사랑으로 올바른 사상으로 돌아오지만 인간의 관념사상이 오직 자기의 마음속에서 정리됨에 따라 호오(好惡)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이 소설 속에서 나타내려 하고 있다.

Ⅲ. 결 론

『美德のよるめき』는 日本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창작된 작품으로 윤리적인 범죄를 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에서는 간통죄가 1947年(昭和22年)에 폐지되었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도의 강제행위이고 이 강제행위를 인간에게 신의와 믿음으로 인간의 지성에 맡기기 위하여 간통죄법을 폐지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 인간의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세쓰코(節子)는 간통을 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작자인 三島由紀夫는 주인공 세쓰코(節子)를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탐미주의자였고, 그는 또 주인공 세쓰코(節子)를 공상사상으로 몰입시켜 간통죄를 범하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도덕주의에 반하는 행동이고 관념사상에 일대 혼란을 야기 시키는 작품으로 이러한 모든 사상과 주의를 엮어 가면서 작자의 사상을 표현하려 하였고 이 작품 속의 배경에 깔려 있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나타내려 하였다. James Rachels씨는 「도덕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였고 다른 문화들은 각각 다른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⁴²⁾고 하였다.

일본과 우리 나라는 문화적 차이가 많다. 日本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성개방 사상이 존재하였고 불교, 유교등 종교에 의한 성에 대한 잠재적인 법칙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후 서양의 성개방 문화가 갑자기 유입되었다. 그래서 남녀간의 성에 대한 관념은 日本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도덕이나 문화적 차이만큼 다른 점이 많다.

James Rachels는 문화적 차이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오랜 옛날부터 성개방이 되어온 日本 사회에서는 이러한

42) James Rachels, 도덕철학, P. 37.

성 개방 소설이 쓰여지고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러한 탐미주의나 관념사상은 전후 민주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일본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세계에서는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더욱 퍼져서 간통죄가 있어도 사회에 많은 범죄자가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 된다면 그 폐약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 국민수준이 어느정도 높아진다면 간통죄를 폐지 하여도 되겠지만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 보면 이 소설 내용과 같은 실제의 사건이 자주 일어 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성범죄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결론 지을 수 있다.

參考文獻

- 佐伯彰一外 3名 編纂, 『三島由紀夫 全集』第10卷, 新朝社, 1973.
 佐伯彰一外 3名 編纂,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新朝社, 1973.
 佐伯彰一外 3名 編纂, 『三島由紀夫 全集』第12卷, 新朝社, 1973.
 鄭飛石, 第1,2卷, 고려원, 1985.
 越次俱子, 國文學(第21권16號)「ロマンの世界」(「美德のよろめき」をめぐって),
 松本徹, 『三島由紀夫』, 河出書房新社, 1990.
 北原武夫, 『群像』日本の作家18, 三島由紀夫, 『美德のよろめき』, 小學館, 1990.
 Richard L.purtill著(김기순외1 역), 윤리적 사고방식,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James Rachels 著(김기순 역), 도덕 철학, 서광사, 1989.
 林薰植, 「三島由紀夫의 作品分析」啓明大學校 大學院, 碩士 論文, 1982.
 三島由紀夫(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84.
 三好行雄編, 三島由紀夫 必携 (No.19) 學燈社, 1983.
 磯田光一, 「作家と作品」, 『日本文學全集 82』, 集英社, 1970.
 셀프성경편찬위원회, 셀프성경, 아가페출판사, 1990.